

원 저

## 한의학분야 연구자들의 학술정보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변성희, 윤구호<sup>1)</sup>, 서미령<sup>2)</sup>

경산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계명대학교 문현정보학과<sup>1)</sup>, 계명대학교 문현정보학과 대학원<sup>2)</sup>

### A Study on the Academic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Oriental Medical Researcher

Sung-Hui Byun, Koo-Ho Yoon<sup>1)</sup>, Mi-Ryeong Seo<sup>2)</sup>

Jeahan Oriental Medical Academy, Kyungsan University,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sup>1)</sup>,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sup>2)</sup>

**Objectives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cademic informationseeking behavior and demand of the oriental medical researcher and to create the base data for establishing a library environment providing a high-quality information service which would aid the activity of such researchers.

**Methods :** We distributed a questionnaire to the one hundred professors of th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on the method of acquisition of information data, the environment of the library belonging to the college, and the like.

**Results :**

① The main class using the academic information service of oriental medicine was revealed to be researchers having a career of 10 to 15 years who had a domestic doctorate in oriental medicine.

② When accessing information, the primary information resource used was academic journals.

③ Of the data forms mentioned in the study, periodicals was used most in number of printed data; computer databases among non-printed data.

④ The purpose of using an information resource was for performing a research project.

⑤ The path of acquisition of information was usually through the materials in their possession.

⑥ The greatest difficulty in gathering information was first of all the lack of information owned by the library, and next a lack of time and insufficient knowledge of information search and use.

⑦ More than 90% of respondents on the necessity of an expert library answered as “necessary” or “certainly necessary”, indicating that the foundation of an expert library is very urgent.

**Conclusions :** This study is beneficial for researchers engaged in oriental medicine to activate the use of information and also it will form a base of data for researchers to establish an environment of expert library in oriental medicine. (J Korean Oriental Med 2002;23(2):1-18)

**Key Words:** academic information, information needs, oriental medical, user study.

### 서 론

- 접수 : 2001년 11월 6일 · 채택 : 2002년 3월 6일  
· 교신저자 : 변성희,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165번지 경산대학교 한의과대학 제한동의학술원  
(Tel. 053-770-2244, E-mail: shbyun@kyungsan.ac.kr)  
· 본 논문은 2001년도 계명대학교 대학원 학술 연구비지원에 의해 이루어짐.

정보는 인류정신의 한 표현물로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시에 전달될 때 생명력을 갖는다. 특히, 학술정보는 원활한 유통과 효율적 이용을 통해 연구개발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학문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된다.

19세기 후반 들어 과학기술의 발전과 학문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정보자료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학문의 세분화와 전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DB나 CD-ROM 등이 인쇄매체보다 우송과 검색이 간편하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며 초록도 포함되어 있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모든 학문분야와 기술영역 연구활동에 있어 각각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적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색하기 위한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최대한 만족시켜 주고자 하는 것은 도서관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를 성취하려면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이용 행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이용 행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정보서비스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정보이용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은 새로운 변화에 연구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연구의 생산성과 효율성 면에서 다른 연구자에게 뒤지게 될 것이다.

학문중에서도 인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의학, 그 중에서도 전통의학이라 일컬어지는 한의학은 오천년 역사를 지닌 동양 고유의 학문이며, 모든 동양학 중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응용과학으로 역대 의학자들의 예지와 경험이 집적되어 있다. 현재 실험연구에 바탕을 두고 발전하고 있는 서양의학과는 달리 한의학의 실험연구는 고증학적인 검증을 행하는 연구경향을 가지고 있다.<sup>10</sup> 한의학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방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왔으나, 이들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집합되어 있지 않아 한의학 연구와 교육에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학문적 발전과 함께 늘어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주제의 중복연

구와 편협된 주제의 연구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전자도서관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한의학분야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체계화된 전자도서관 형태는 매우 드물며, 전문화된 한의학 정보센터나 도서관도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을 위한 정보서비스의 질적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국내에서는 1997년 8월부터 정부와 한의계가 한의학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2010 Project”를 추진시키고 있다.<sup>2)</sup> 이는 21세기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체계화시키고, 새로운 경쟁의 틀로 기술과 연결시켜 고부가가치의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의학이 사회 전반의 정보화에 부응하여 학술적 입지를 확보하고 더욱 실용적인 의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한의학의 기초자료나 임상자료를 객관화, 체계화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를 파악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활동에 도움을 주는 질높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부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 연구방법

###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국내 한의학분야 연구자들의 학술정보 이용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정보자료 입수방법과 도서관 및 정보자료실(도서관) 환경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전공, 학교, 직위, 연령, 성별, 연구경력, 최종학위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둘째, 정보자료의 이용과 입수방법에 대해서는 정보접근시 일차적 정보원, 정보입수 소요시간, 연구에 이용되는 자료종수, 이용자료의 유형, 자료이용의 목적, 정보입수경로, 정보입수시 어려운 점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셋째, 정보자료실(도서관)환경에 대해서는 도서관 이용빈도, 정보자료실의 자료제공시설, 개선

점, 전문도서관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이론연구를 주로 하는 기초연구자와 임상실험 결과를 주로 연구하는 임상 연구자들 중 기초교수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에 전체적인 한의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분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한의학을 주전공으로 하지 않은 관련전공자들도 소수 포함시켰다. 이는 현재 각 대학 한의학과 기초교수의 구성이 한의학이외에 서양의학, 생물학, 약학 등 한의학과 관련되어 있는 교수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자료의 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국내 한의학과가 개설된 11개대학(경산대, 경원대, 경희대, 대전대, 동국대, 동신대, 동의대, 상지대, 세명대, 우석대, 원광대)에 있는 한의학과 기초교수 1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조사는 2001년 3월 5일에서 3월 30일까지 4주간에 걸쳐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회수된 78명(응답률 78%)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MS Windows에서 작동하는 통계처리 패키지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결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학술정보 입수방법, 정보자료실 환경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학술정보 입수방법에 대한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직위, 연령, 연구경력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분산분석(F분석), 카이제곱분석( $\chi^2$ 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정보자료실(도서관)환경에 대한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직위, 연령, 연구경력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분산분석(F분석), 카이제곱분석( $\chi^2$ test)을 실시하였다.

이외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학교, 성별, 재직기간, 최종학위별로 구분해 비교 분석하려 했으나, 성별에서 여성의 빈도수가 너무 적은 관계로 제외하였고

**표 1. 분석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전공	동물학	1 1.3
	생물학	1 1.3
	생화학	1 1.3
	약학	2 2.6
	서양의학	1 1.3
	한의학	72 92.3
소속기관명	경산대	11 14.1
	경원대	5 6.4
	경희대	9 11.5
	대전대	6 7.7
	동국대	12 15.4
	동신대	3 3.8
	동의대	7 9.0
	상지대	5 6.4
	세명대	6 7.7
	우석대	6 7.7
직위	원광대	8 10.3
	교수	25 32.1
	부교수	13 16.7
	조교수	36 46.2
연령	전임강사	3 3.8
	31-40세	37 47.4
	41-50세	26 33.3
	51-60세	11 14.1
	60세이상	4 5.1
성별	남	71 91.0
	여	7 9.0
연구경력	3-5년	9 11.5
	5-10년	19 24.4
	10-15년	23 29.5
	15-20년	12 15.4
	20년이상	13 16.7
최종학위	학사	1 1.3
	석사	1 1.3
	박사	76 97.4
계	78	100

최종학위 또한 학사와 석사의 빈도수가 너무 적은 이유로 제외하였고 재직기간은 연구경력과 거의 같이 나타나 제외하였으며 학교는 표본의 수가 많고 학교별 분포가 너무 분산적이기에 제외하였다.

## 분석 결과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 분석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전공분야별로는 한의학전

공 교수가 92.3%, 약학전공 교수가 2.6%, 동물학전공, 생물학전공, 생화학전공, 서양의학전공 교수가 각각 1.3%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 각 대학 한의학과 기초교수의 구성은 한의학 이외에 서양의학, 생물학, 약학 등 한의학과 관련된 전공교수들도 소수 재직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한의학 학술정보서비스를 위해서는 한의학은 물론 인접학문 특히, 기초과학과 서양의학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힘을 의미한다.

한편, 소속기관별로는 동국대가 15.4%, 경산대가 14.1%, 경희대가 11.5%, 원광대가 10.3%, 그 다음으로 동의대, 대전대, 세명대, 우석대, 경원대, 상지대, 동신대 순으로 분포되었다. 직위별로는 조교수 46.2%, 교수 32.1%, 부교수 16.7%, 전임강사 3.8%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1-40세가 47.4%, 41-50세가 33.3%, 51-60세가 14.1%, 60세이상 5.1%로 응답자의 연령분포가 31-50세 사이에 밀집되어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 91%, 여자 9%로 남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또한 연구경력은 3-5년 11.5%, 5-10년 24.4%, 10-15년 29.5%, 15-20년 15.4%, 20년이상 16.7%로 나타났으며, 최종학위별로 박사가 97.4%, 석사, 학사가 각각 1.3%로 박사학위소지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런 경우 앞으로 정보서비스의 내용이 보다 전문화되고 수준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학술정보 입수방법

### 1) 정보접근시 일차적 정보원

한의학분야 연구자들이 일차적으로 접근하는 정보원을 직위, 연령, 연구경력별로 구분해 비교 분석하였다.(표 2)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직위에서 연속간행물이 일차적 접근 정보원으로서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수, 부교수는 단행본이, 조교수는 인터넷의 비율이 높았으며, 전임강사는 단행본을 제외한 인터넷, 연속간행물, 학위논문의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전임강사와 조교수들이 연속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최신정보의 접근을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 걸쳐 연속간행물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정보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41세이상에서는 단행본이 높게 나타났으나, 31-40세에서는 단행본보다 인터넷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경력별에서는 15-20년인 경우에만 연속간행물과 인터넷이 동일한 비율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연속간행물이 높았다.

전임강사와 31-40세의 경우, 연속간행물 다음으로 인터넷 정보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비교적 짧은 층이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편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며, 반면 60세이상과 연구경력 20년이상인 경우, 연속간행물 다음으로 단행본이 높은 것은 접근방법이 인터넷 정보원보다는 단행본 이용에 더 익숙하기

**표 2. 정보접근시 일차적 정보원**

구분	내용	인터넷		연속간행물		단행본		학위논문		전체		유의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직위	교수	3	12.0	14	56.0	7	28.0	1	4.0	25	100	$F=8.737$ $P=0.423$
	부교수	4	30.8	5	38.5	4	30.8	.	.	13	100	
	조교수	8	22.2	20	55.6	7	19.4	1	2.8	36	100	
연령	전임강사	1	33.3	1	33.3	.	.	1	33.3	3	100	$F=7.809$ $P=0.531$
	31-40세	10	27.0	19	51.4	6	16.2	2	5.4	37	100	
	41-50세	6	23.1	11	42.3	9	34.6	.	.	26	100	
	51-60세	1	9.1	7	63.6	2	18.2	1	9.1	11	100	
	60세이상	.	.	3	75.0	1	25.0	.	.	4	100	
연구경력	3-5년	1	11.1	5	55.6	2	22.2	1	11.1	9	100	$F=12.958$ $P=0.287$
	5-10년	6	31.6	8	42.1	5	26.3	.	.	19	100	
	10-15년	5	21.7	14	60.9	3	13.0	1	4.3	23	100	
	15-20년	4	33.3	4	33.3	3	25.0	1	8.3	12	100	
	20년이상	.	.	8	61.5	5	38.5	.	.	13	100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점은 인터넷을 통한 한의학 관련 정보를 얻을 만한 곳이 거의 없는 실정도 포함한다. 인터넷상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학 관련 사이트는 어느 정도 있지만 전문가집단인 교수들이 정보원으로 활용할 만한 곳은 매우 드물다.

전반적으로 직위, 연령, 연구경력별로 평균하여 순위를 살펴보면, 1위는 연속간행물(51.9%, 51.3%, 51.3%), 2위는 단행본도서(23.4%, 23.1%, 23.7%), 3위는 인터넷(20.8%, 21.8%, 21.1%), 4위는 학위논문(3.9%, 3.8%, 3.9%)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직위, 연령, 연구경력은 일차적 정보접근 정보원과의 관계에서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었다.( $P=0.423, 0.531, 0.287$ )

## 2) 정보입수 소요시간

한의학분야 연구자들의 학술정보입수 소요시간을 직위, 연령, 연구경력별로 구분해 비교 분석하였다.(표 3)

정보입수 소요시간을 주당 평균하여 보면 교수 12.7시간, 부교수 9.2시간, 조교수 9.5시간, 전임강사 4.1시간으로 비교적 직위가 높을수록 정보입수 소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도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큼 차이는 없다( $P=0.521$ ). 이는 교수와 전임강사의 시간차이가 거의 9시간으로 느낌상으로는 크나 분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결과

가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51-60세인 경우 정보입수 소요 평균시간이 대략 18시간으로 가장 오래 걸렸고, 다른 연령층(31세에서 50세 및 60세이상)은 8.5-9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큼 차이는 없다( $P=0.065$ ). 연구경력별로 보면 20년 이상인 경우 정보입수 소요 평균시간이 약 20시간으로 가장 오래 걸렸고, 다음으로 10-15년이 11시간, 5-10년이 8시간, 3-5년과 15-20년이 각각 6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7$ ).

특히 각 부분에서 정보입수 소요시간이 가장 길었던 교수, 51-60세, 20년이상은 앞의 표 2에서 관련분야 저널 다음으로 단행본 접근을 많이 한 경우이다. 이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전달 속도가 빠른 정보원보다 상대적으로 단행본이 전달되는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 3) 연구에 이용되는 자료 종수

한의학분야 연구자들이 연구에 이용하는 자료 종수를 직위, 연령, 연구경력별로 구분해 비교 분석하였다.(표 4)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연구에 이용하는 자료 종수는 11-30종이 가장 많았다. 특히 전임강사는 11-30종이 100%로 압도적이었다. 그 다음으로 교수는 51종이상, 부교수와 조교수는 31-50종이었다. 연령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11-30종이 가장 많았다.

**표 3. 정보입수 소요시간**

구분	빈도	평균(시간)	표준편차	F값	유의도
직위	교수	22	12.727	12.870	$F=0.759$ $P=0.521$
	부교수	12	9.250	8.081	
	조교수	35	9.557	10.855	
	전임강사	3	4.167	1.607	
연령	31-40세	36	9.000	10.405	$F=2.520$ $P=0.065$
	41-50세	23	8.522	7.434	
	51-60세	11	18.273	15.679	
	60세이상	3	9.000	9.539	
연구경력	3-5년	9	6.444	4.613	$F=3.266$ $P=0.017$
	5-10년	19	8.132	10.778	
	10-15년	20	11.075	10.981	
	15-20년	12	6.417	4.316	
	20년이상	11	19.727	15.107	

표 4. 연구에 이용되는 자료 종수

구분	내용	10종이하		11-30종		31-50종		51종이상		전체		유의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직위	교수	2	8.0	12	48.0	5	20.0	6	24.0	25	100	F=5.392 P=0.823
	부교수	.	.	9	69.2	3	23.1	1	7.7	13	100	
	조교수	3	8.3	16	44.4	10	27.8	7	19.4	36	100	
	전임강사	.	.	3	100	.	.	.	.	3	100	
연령	31-40세	3	8.1	17	45.9	12	32.4	5	13.5	37	100	F=6.620 P=0.663
	41-50세	2	7.7	15	57.7	3	11.5	6	23.1	26	100	
	51-60세	.	.	5	45.5	3	27.3	3	27.3	11	100	
	60세이상	.	.	3	75.0	1	25.0	.	.	4	100	
연구경력	3-5년	.	.	5	55.6	1	11.1	3	33.3	9	100	F=10.128 P=0.575
	5-10년	2	10.5	10	52.6	5	26.3	2	10.5	19	100	
	10-15년	1	4.3	15	65.2	5	21.7	2	8.7	23	100	
	15-20년	2	16.7	5	41.7	2	16.7	3	25.0	12	100	
	20년이상	.	.	5	38.5	5	38.5	3	23.1	13	100	

또한 51-60세, 60세이상인 경우 10종 이하는 전혀 없었다. 연구경력에서도 3년에서 20년사이에는 11-30종이 가장 많았으며, 20년이상은 11-30종, 31-50종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직위, 연령, 연구경력별로 평균해 보면, 1위는 11-30종(51.9%, 51.3%, 52.6%), 2위는 31-50종(23.4%, 24.4%, 23.7%), 3위는 51종이상(18.2%, 17.9%, 17.1%), 4위는 10종이하(6.5%, 6.4%, 6.6%)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른 학문분야에서 연구에 이용되는 자료 종수와 비슷하다.

한편, 통계적으로 직위, 연령, 연구경력이 연구에

이용되는 자료종수와의 관계에서 유의도에는 차이가 없었다.(P=0.823, 0.663, 0.575)

#### 4) 이용 자료 유형(인쇄·비인쇄자료)

한의학분야 연구자들이 연구에 이용하는 인쇄·비인쇄 자료 유형을 직위, 연령, 연구경력별로 구분해 비교 분석하였다.(표 5, 표 6)

인쇄자료 중에서는 모든 직위에서 연속간행물의 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부교수의 경우에는 단행본의 비율도 동일하였다. 연령별로는 31-40세와 51-60세가 연속간행물, 단행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순으로

표 5. 이용 자료유형(인쇄자료)

구분	유형	연속간행물		단행본도서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전체		유의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직위	교수	12	50.0	9	37.5	1	4.2	2	8.3	24	100	F=5.541 P=0.865
	부교수	6	46.2	6	46.2	.	.	1	7.7	13	100	
	조교수	19	52.8	13	36.1	1	2.8	3	8.3	36	100	
	전임강사	2	66.7	.	.	.	.	1	33.3	3	100	
연령	31-40세	21	56.8	11	29.7	1	2.7	4	10.8	37	100	F=12.682 P=0.116
	41-50세	10	38.5	15	57.7	.	.	1	3.8	26	100	
	51-60세	6	54.5	2	18.2	1	9.1	2	18.2	11	100	
	60세이상	3	100	.	.	.	.	.	.	3	100	
연구경력	3-5년	3	33.3	4	44.4	1	11.1	1	11.1	9	100	F=13.618 P=0.205
	5-10년	12	63.2	4	21.1	.	.	3	15.8	19	100	
	10-15년	13	56.5	9	39.1	.	.	1	4.3	23	100	
	15-20년	3	25.0	6	50.0	1	8.3	2	16.7	12	100	
	20년이상	8	66.7	4	33.3	.	.	.	.	12	100	

표 6. 이용 자료유형(비인쇄자료)

구분	유형	마이크로형태		비디오/오디오		CD-ROM		DB		외부온라인		기타		전체		유의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직위	교수	.	.	4	16.7	3	12.5	9	37.5	8	33.3	.	.	24	100	
	부교수	1	7.7	1	7.7	1	7.7	5	38.5	3	23.1	2	15.4	13	100	F=18.696
	조교수	.	.	4	11.4	6	17.1	19	54.3	6	17.1	.	.	35	100	P=0.166
	전임강사	.	.	.	.	2	66.7	1	33.3	.	.	.	.	3	100	
연령	31-40세	.	.	4	11.1	6	16.7	19	52.8	7	19.4	.	.	36	100	
	41-50세	1	3.8	4	15.4	4	15.4	10	38.5	5	19.2	2	7.7	26	100	F=13.145
	51-60세	.	.	.	.	2	18.2	5	45.5	4	36.4	.	.	11	100	P=0.687
	60세이상	.	.	1	33.3	.	.	1	33.3	1	33.3	.	.	3	100	
연구경력	3-5년	.	.	2	22.2	3	33.3	3	33.3	1	11.1	.	.	9	100	
	5-10년	.	.	.	.	5	26.3	12	63.2	2	10.5	.	.	19	100	$\chi^2=23.705$
	10-15년	.	.	3	13.0	1	4.3	12	52.2	5	21.7	2	8.7	23	100	P=0.096
	15-20년	.	.	2	16.7	3	25.0	2	16.7	5	41.7	.	.	12	100	
	20년이상	.	.	2	16.7	.	.	6	50.0	4	33.3	.	.	12	100	

이용하였으며, 41-50세가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순으로, 60세이상은 연속간행물이 100%로 다른 자료의 이용은 없다. 연구경력별로는 5-10년, 10-15년은 연속간행물, 단행본, 학위논문 순으로, 20년이상은 연속간행물, 단행본 순으로 이용하였다. 반면 3-5년, 15-20년인 경우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순으로 단행본이 연속간행물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표 2의 정보접근시 일차적 정보원의 현상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직위, 연령, 연구경력별로 평균해 보면, 1위는 연속간행물(51.3%, 51.9%, 52%), 2위는 단행본(36.8%, 36.4%, 36%), 3위는 학위논문(9.2%, 9.1%, 9.3%), 4위는 연구보고서(2.6%, 2.6%, 2.7%)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직위, 연령, 연구경력이 연구에 이용되는 자료종수와의 관계에서 유의도에는 차이가 없었다.(P=0.865, 0.116, 0.205)

비인쇄 자료 중에서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인 경우 DB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그외 외부온라인, CD-ROM, 비디오/오디오 등의 자료도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강사는 CD-ROM을 DB보다 더 많이 이용하였고 그외 비인쇄자료는 이용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전연령층에서 DB의 이용이 높았으며, 60세이상에서는 DB가 비디오/오디오,

외부온라인 등과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연구경력이 3-5년, 5-10년, 10-15년, 20년이상에서 DB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15-20년인 경우는 외부온라인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마이크로형태자료의 이용은 매우 적었는데 이는 정보매체 수단의 변화로 인해 마이크로형태 자료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를 입수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DB의 이용이 점차 늘어나리라고 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직위, 연령, 연구경력별로 평균해 보면, 1위는 DB(45.3%, 46.1%, 46.7%), 2위는 외부온라인(22.7%, 22.4%, 22.7%), 3위는 CD-ROM(16%, 15.8%, 16%), 4위는 비디오/오디오(12%, 11.8%, 12%), 5위는 기타비인쇄자료(2.7%, 2.6%, 2.7%), 6위는 마이크로형태(1.3%, 1.3%, 0%)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직위, 연령, 연구경력이 연구에 이용되는 자료종수와의 관계에서 유의도에는 차이가 없었다.(P=0.166, 0.687, 0.096)

### 5) 자료 이용 목적

한의학분야 연구자들이 자료를 이용하는 주목적에 대해 직위, 연령, 연구경력별로 구분해 비교 분석하였다.(표 7)

표 7. 자료 이용 목적

구분	내용	연구과제수행		학위논문준비		학술발표, 저술		기타		전체		유의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직위	교수	18	72.0	.	.	7	28.0	.	.	25	100	F=11.064 P=0.315
	부교수	11	84.6	.	.	1	7.7	1	7.7	13	100	
	조교수	29	82.9	1	2.9	5	14.3	.	.	35	100	
	전임강사	2	66.7	.	.	1	33.3	.	.	3	100	
연령	31-40세	30	83.3	.	.	6	16.7	.	.	36	100	F=10.819 P=0.328
	41-50세	21	80.8	1	3.8	3	11.5	1	3.8	26	100	
	51-60세	8	72.7	.	.	3	27.3	.	.	11	100	
	60세이상	2	50.0	.	.	2	50.0	.	.	4	100	
연구경력	3-5년	8	88.9	.	.	1	11.1	.	.	9	100	F=10.836 P=0.662
	5-10년	15	78.9	1	5.3	3	15.8	.	.	19	100	
	10-15년	20	87.0	.	.	2	8.7	1	4.3	23	100	
	15-20년	8	66.7	.	.	4	33.3	.	.	12	100	
	20년이상	10	76.9	.	.	3	23.1	.	.	13	100	

표 8. 정보입수 경로

구분	내용	본인소장 자료		소속기관 자료실		국내다른 기관		외국기관		전체		유의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직위	교수	11	44.0	6	24.0	5	20.0	3	12.0	25	100	F=7.300 P=0.581
	부교수	6	46.2	5	38.5	1	7.7	1	7.7	13	100	
	조교수	18	51.4	4	11.4	8	22.9	5	14.3	35	100	
	전임강사	1	33.3	1	33.3	.	.	1	33.3	3	100	
연령	31-40세	17	47.2	6	16.7	7	19.4	6	16.7	36	100	F=8.422 P=0.443
	41-50세	13	50.0	8	30.8	4	15.4	1	3.8	26	100	
	51-60세	3	27.3	2	18.2	3	27.3	3	27.3	11	100	
	60세이상	3	75.0	.	.	1	25.0	.	.	4	100	
연구경력	3-5년	4	44.4	1	11.1	3	33.3	1	11.1	9	100	F=14.193 P=0.237
	5-10년	11	57.9	3	15.8	4	21.1	1	5.3	19	100	
	10-15년	10	43.5	6	26.1	3	13.0	4	17.4	23	100	
	15-20년	4	33.3	6	50.0	2	16.7	.	.	12	100	
	20년이상	7	53.8	.	.	3	23.1	3	23.1	13	100	

직위, 연령, 연구경력의 모든 측면에서 연구과제 수행이 자료이용의 주목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관련 분야의 동료연구자들에게 학문적인 연구를 발표하는 학술발표와 자신의 학문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저술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직위가 조교수, 연령이 41-50세, 연구경력이 5-10년 된 소수 연구자의 경우 학위논문준비를 위해서 이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학위논문 준비나 학술논문 발표 등과 같은 순수한 학문적 업적보다는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구과제 수행에 더 큰 비중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전반적으로 직위, 연령, 연구경력별로 평균해 보면,

1위는 연구를 위해서(78.9%, 79.2%, 80.3%), 2위는 학술발표나 저술을 위해서(18.4%, 18.2%, 17.1%), 3위는 학위논문준비를 위해서(1.3%, 1.3%, 1.3%), 4위는 기타(1.3%, 1.3%, 1.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료 이용 목적의 관계는 직위, 연령, 연구경력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P=0.315, 0.328, 0.662$ )

#### 6) 정보입수 경로

한의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입수 경로에 대해 직위, 연령, 연구경력별로 구분해 비교 분석하였다.(표 8)

정보입수 경로의 순위는 대체로 본인소장 자료, 소

속기관 자료실, 국내 다른 기관, 외국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교수는 본인소장 자료, 국내 다른 기관, 외국기관, 소속기관 자료실 순으로, 전임강사는 본인소장자료, 소속기관 자료실, 외국기관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본인소장 자료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51-60세인 경우 본인소장 자료와 함께 국내 다른 기관과 외국기관의 비율도 높았다. 또한 60세이상은 본인소장 자료가 다른 어떤 경로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구경력별로는 3-5년, 5-10년, 10-15년, 20년이상은 본인소장 자료의 비율이 높았지만, 15-20년인 경우는 소속기관 자료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위, 연령, 연구경력별로 평균해 보면, 1위는 본인 소장 자료(47.4%, 46.8%, 47.4%), 2위는 소속기관의 자료실(21.1%, 20.8%, 47.4%), 3위는 국내 다른 기관(18.4%, 19.5%, 21.1%), 4위는 외국기관(13.2%, 13%, 11.8%) 순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본인소장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학분야 자료가 단행본의 비중이 높고 이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소속기관의 자료실에서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자료실을 통한 정보입수의 신속성 및 편의성 등을 좀더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한의학 분야의 많은 유

용한 자료들을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하기를 꺼리는 경향이므로 정보입수 경로가 개인소장 자료나 소속 기관의 자료실에 편중된 것으로 사료된다.

유의도 측면에서 보면 직위, 연령, 연구경력이 정보입수 경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함을 보이고 있다.( $P=0.581, 0.443, 0.237$ )

#### 7) 정보입수시 어려운점

한의학분야 연구자들이 정보를 입수하는데 어려운 점을 직위, 연령, 연구경력별로 구분해 비교 분석하였다.(표 9)

정보를 입수할 때 어려운 점으로는 모든 직위에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부교수인 경우는 시간부족도, 전임강사는 시간부족과 정보탐색 및 이용에 관한 지식부족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도서관 자료부족이 정보입수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어려운 점이 시간부족이였고, 51-60세는 정보탐색 및 이용에 관한 지식부족이 도서관 자료부족 다음으로 높았다. 연구경력별로도 주로 도서관 자료부족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고, 3-5년인 경우는 정보탐색 및 이용에 관한 지식부족, 그외의 경우는 시간부족이였다.

전체적으로 직위, 연령, 연구경력별로 평균해 보면,

**표 9. 정보입수시 어려운점**

구분	내용	도서관 정보 자료부족		도서관사서 정보 서비스부족		시간부족		지리적인 거리		정보탐색 및 이용에관한 지식부족		전체 빈도 %	유의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직위	교수	16	66.7	.	.	4	16.7	1	4.2	3	12.5	24	100
	부교수	6	46.2	1	7.7	6	46.2	.	.	.	.	13	100
	조교수	20	57.1	.	.	6	17.1	5	14.3	4	11.4	35	100
	전임강사	1	33.3	.	.	1	33.3	.	.	1	33.3	3	100
연령	31-40세	19	52.8	.	.	7	19.4	5	13.9	5	13.9	36	100
	41-50세	13	52.0	1	4.0	10	40.0	.	.	1	4.0	25	100
	51-60세	8	72.7	.	.	.	.	1	9.1	2	18.2	11	100
	60세이상	3	75.0	.	.	1	25.0	.	.	.	.	4	100
연구경력	3-5년	7	77.8	.	.	.	.	.	.	2	22.2	9	100
	5-10년	10	52.6	.	.	7	36.8	.	.	2	10.5	19	100
	10-15년	8	34.8	1	4.3	7	30.4	5	21.7	2	8.7	23	100
	15-20년	9	75.0	.	.	2	16.7	.	.	1	8.3	12	100
	20년이상	8	66.7	.	.	2	16.7	1	8.3	1	8.3	12	100

1위는 도서관 자료부족(57.3%, 56.6%, 56%), 2위는 시간부족(22.7%, 23.7%, 24%), 3위는 정보탐색 및 이용에 대한 지식부족(10.7%, 10.5%, 10.7%), 4위는 지리적인 거리(8.0%, 7.9%, 8%), 5위는 도서관사서의 정보서비스부족(1.3%, 1.3%, 1.3%)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자체가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간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양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의 신속한 입수가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탐색 및 이용에 관한 지식부족은 정보의 이용 방법을 모르는 이용자가 많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보자료실에서는 충분한 안내와 참고서비스 봉사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지리적인 거리도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자들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자료실이나 도서관이 근접한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는 직위, 연령, 연구경력이 정보입수시 어려운 점과는 유의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 $P=0.179, 0.120, 0.171$ )

### 3. 정보자료실(도서관) 환경

#### 1) 정보자료실(도서관) 이용빈도

한의학분야 연구자들이 평소에 도서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를 직위, 연령, 연구경력별로 구분해 비교 분석하였다.(표 10)

주당 평균횟수를 보면 교수 2.5회, 부교수 0.8회, 조

교수 1.9회, 전임강사 0.7회로 교수와 조교수가 전임강사와 부교수보다 도서관 이용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1-60세가 3.5회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다음으로 31-40세가 1.6회, 41-50세와 60세이상이 1.5회로 나타났다. 연구경력별로는 3-5년이 1.2회, 5-10년이 1.4회, 10-15년이 1.8회, 15-20년이 2회, 20년이상이 3.1회로, 연구경력이 오래될 수록 이용빈도가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직위, 연령, 연구경력이 정보자료실(도서관) 이용빈도와의 관계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 $P=0.191, 0.086, 0.327$ )

이러한 통계 결과는 직위, 연구경력이 많을수록 도서관 이용빈도가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직위가 높고 연구 경력이 오래될수록 자신의 연구실에 보유한 자료가 대체적으로 많고, 희귀자료 또한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직위, 연령, 연구경력 등 모든 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소속기관의 중앙도서관과는 별개로 한의학 도서실(학교의 관리를 받지 않는 개인적인 자료실 또는 학과내 작은 규모로 설치된 자료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내 중앙도서관 이용빈도는 낮아질 수도 있다.

#### 2) 소속 정보자료실의 자료제공 시설에 대한 반응

한의학분야 연구자들의 소속 정보자료실의 자료제공 시설에 대한 반응을 직위, 연령, 연구경력별로 구

**표 10. 정보자료실(도서관) 이용빈도**

구분	빈도	평균(횟수)	표준편차	F값	유의도
직위	교수	24	2.510	2.477	1.627 0.191
	부교수	11	0.809	1.036	
	조교수	34	1.987	2.534	
	전임강사	3	0.750	0.661	
연령	31-40세	35	1.675	2.181	2.292 0.086
	41-50세	24	1.566	2.217	
	51-60세	11	3.568	2.793	
	60세이상	3	1.500	1.322	
연구경력	3-5년	8	1.234	1.232	1.180 0.327
	5-10년	19	1.436	1.686	
	10-15년	22	1.865	2.879	
	15-20년	11	2.022	1.776	
	20년이상	12	3.125	2.993	

## 분해 비교 분석하였다.(표 11)

직위별로는 교수는 “불만족스럽다”로, 부교수가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가 같은 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교수, 전임강사는 “그저 그렇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1-40세가 “그저 그렇다”로, 41-50세가 “불만족스러운 편이다”와 “그저 그렇다”가 같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51-60세는 “불만족스러운 편이다”로, 60세이상은 “매우 불만족하다”와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그저 그렇다”가 전체적으로 분포되었다. 연구경력별로는 3-5년과 5-10년이 “그저 그렇다”로, 10-

15년이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그저 그렇다”와 “만족하는 편이다”가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 15-20년이 “불만족스러운 편이다”와 “그저 그렇다”가 같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20년이상은 “불만족스러운 편이다”로 가장 높았다. 이를 전체적으로 직위, 연령, 연구경력별로 평균해 보면, 1위는 “그저 그렇다”(36%, 36.8%, 36%), 2위는 “불만족스러운 편이다”(26.7%, 26.3%, 26.7%), 3위는 “매우 불만족스럽다”와 “만족하는 편이다”(18.7%, 18.4%, 18.7%)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료제공시설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직위, 연령, 연구경

표 11. 소속정보자료실 자료제공시설에 대한 반응

구분	내용	매우불만족		불만족스러운 편		그저그렇다		만족하는편		전체		유의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직위	교수	3	12.5	9	37.5	8	33.3	4	16.7	24	100	F=7.859 P=0.518
	부교수	1	7.7	4	30.8	4	30.8	4	30.8	13	100	
	조교수	10	28.6	6	17.1	13	37.1	6	17.1	35	100	
	전임강사	·	·	1	33.3	2	66.7	·	·	3	100	
연령	31-40세	8	22.2	7	19.4	16	44.4	5	13.9	36	100	F=5.898 P=0.772
	41-50세	4	15.4	8	30.8	8	30.8	6	23.1	26	100	
	51-60세	1	9.1	4	36.4	3	27.3	3	27.3	11	100	
	60세이상	1	33.3	1	33.3	1	33.3	·	·	3	100	
연구경력	3-5년	1	11.1	1	11.1	5	55.6	2	22.2	9	100	F=6.872 P=0.893
	5-10년	4	21.1	4	21.1	9	47.4	2	10.5	19	100	
	10-15년	5	21.7	6	26.1	6	26.1	6	26.1	23	100	
	15-20년	2	16.7	4	33.3	4	33.3	2	16.7	12	100	
	20년이상	2	16.7	5	41.7	3	25.0	2	16.7	12	100	

표 12. 소속정보자료실 개선점

구분	내용	최신자료 서비스		전공관련자료 보증		기술적인검색방법 안내		외부자료 이용 편의성제공		기타		전체	유의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직위	교수	5	20.8	13	54.2	1	4.2	5	20.8	·	·	24	100
	부교수	2	15.4	7	33.8	2	15.4	2	15.4	·	·	13	100
	조교수	9	25.7	18	51.4	2	5.7	3	8.6	3	8.6	35	100
	전임강사	·	·	1	33.3	1	33.3	1	33.3	·	·	3	100
연령	31-40세	10	27.8	15	41.7	5	13.9	4	11.1	2	5.6	36	100
	41-50세	5	19.2	16	61.5	1	3.8	3	11.5	1	3.8	26	100
	51-60세	2	18.2	6	54.5	·	·	3	27.3	·	·	11	100
	60세이상	·	·	2	66.7	·	·	1	33.3	·	·	3	100
연구경력	3-5년	2	22.2	6	66.7	1	11.1	·	·	·	·	9	100
	5-10년	5	26.3	8	42.1	4	21.1	1	5.3	1	5.3	19	100
	10-15년	4	17.4	11	47.8	1	4.3	5	21.7	2	8.7	23	100
	15-20년	5	41.7	7	58.3	·	·	·	·	·	·	12	100
	20년이상	1	8.3	6	50.0	·	·	5	41.7	·	·	12	100

$$\chi^2 = 24.397$$

$$P = 0.081$$

력이 높을수록 그 경향은 심한데, 이는 정보자료실의 정보서비스가 과거나 현재 별 변화없이 유지되는 현상에서 기인된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직위, 연령, 연구경력이 소속정보자료실의 자료제공 시설에 대한 만족정도와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P=0.518, 0.772, 0.893$ )

### 3) 소속 정보자료실 개선점

한의학분야 연구자들의 소속 정보자료실에 대한 개선점을 직위, 연령, 연구경력별로 구분해 비교 분석하였다.(표 12)

앞서 표 11에서도 나타났듯이 소속 정보자료실 자료제공 시설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족스러웠는데, 결국 이는 자료실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2에서 소속 정보 자료실이 개선되어야 할 요구사항으로 전공 관련자료 보충이 직위, 연령, 연구경력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직위, 연령, 연구경력별로 평균해 보면, 1위는 전공관련 자료보충(52%, 51.3%, 50.7%), 2위는 최신정보자료서비스(21.3%, 22.4%, 22.7%), 3위는 외부자료 이용 편의성 제공(14.7%, 14.5%, 14.7%), 4위는 기술적인 검색방법안내(8%, 7.9%, 8%) 순으로 나타난다. 전공관련 자료보충이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도서관은 한의학분야의 자료조사 및 선정

을 할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인터넷, DB, CD-ROM으로 표현되는 전자도서관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에 따라 최신자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졌다. 또한 통신의 발달과 컴퓨터의 결합은 디지털 정보를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도서관과 정보원, 정보원과 정보원, 대규모 공공 정보자료실, 기타 도서관과 이용자 사이를 연결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자료실은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색방법 및 외부자료 이용의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직위, 연령, 연구경력이 소속정보자료실의 개선점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533, 0.735, 0.081$ )

### 4) 전문도서관 필요성

최근 학문의 세분화와 전문화로 인해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의학이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정보가 우선시 된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전문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 직위, 연령, 연구경력면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필요하다” 또는 “꼭 필요하다”고 답해 전문도서관 설립이 절실히 나타내고 있다.(표 13)

전체적으로 직위, 연령, 연구경력별로 평균해 보면, 1위는 꼭 필요하다(63.2%, 62.3%, 63.2%), 2위는 필요하다(34.2%, 35.1%, 34.2%), 3위는 모르겠다(2.6%),

**표 13. 전문도서관 필요성**

구분	내용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모르겠다		전체		유의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직위	교수	7	28.0	18	72.0	.	.	3	100	$F=4.121$ $P=0.770$
	부교수	4	30.8	9	69.2	.	.	35	100	
	조교수	14	40.0	19	54.3	2	5.7	13	100	
	전임강사	1	33.3	2	66.7	.	.	25	100	
연령	31-40세	17	47.2	17	47.2	2	5.6	36	100	$F=7.590$ $P=0.225$
	41-50세	7	26.9	19	73.1	.	.	26	100	
	51-60세	2	18.2	9	81.8	.	.	11	100	
	60세이상	1	25.0	3	75.0	.	.	4	100	
연구경력	3-5년	3	33.3	6	66.7	.	.	9	100	$F=5.113$ $P=0.796$
	5-10년	9	47.4	10	52.6	.	.	19	100	
	10-15년	7	30.4	14	60.9	2	8.7	23	100	
	15-20년	3	25.0	9	75.0	.	.	12	100	
	20년이상	4	30.8	9	69.2	.	.	13	100	

2.6%, 2.6%) 순으로 나타난다.

현재 국내에서는 서양의학분야의 정보센터가 정부 산하에서 운영되고, 대부분 각 의과대학내의 전문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한의학분야는 소속대학의 일반 중앙도서관만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수 학교에서는 한의학 도서실이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자료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전문도서관이 있다하더라도 체계적인 정보제공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직위, 연령, 연구경력이 전문도서관 필요성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770, 0.225, 0.796$ )

## 고찰

국내에서는 과학자, 기술자, 대학교수들의 정보요구, 이용행태, 특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지식의 영역을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세분야로 크게 나눈다면 각 학문분야에 따라 그 특성과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이 서로 다르고 연구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도 달라진다. 현재 한의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이용자연구의 효시는 김두홍(1974)<sup>10</sup>의 「전국 수준의 ‘과학자의 정보이용과 정보이용행동에 관한 조사’를 위한 설문시안」이라 할 수 있다. 이 설문시안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행태조사’를 시행한 한복희(1976)<sup>11</sup>, 이중요(1976)<sup>12</sup>의 연구가 실시되어 국내 이용자연구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김용성(1988)<sup>13</sup>은 우리나라 사회과학자들의 논문에 이용된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사회과학자들의 문헌 인용습관을 구명하였다.

한복희(1992)<sup>14</sup>는 1980-1990년 사이에 국내에서 연구된 이용자연구논문 120편을 분석하였다. 이용자 연구 분야의 국내외 관계문헌을 조사한 후, 연구대상 기간동안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이용자연구의 연구방법과 결과 그리고 전체적인 연구동향을 조사하였다. 이용자, 정보이용, 정보요구, 이용행태, 이용습관 등의

용어가 표제에 들어간 논문을 대상으로 연도별 필자의 분포, 연도별 논문의 발표매체 비교, 연도별 논문의 주제분야별 비교, 필자들의 논문생산성, 필자들의 논문 발표매체 등을 비교하였다.

김병주(1995)<sup>15</sup>는 우리나라 사회과학자들의 다양한 정보요구와 이용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한복희(1996)<sup>16</sup>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의 정보이용 및 정보이용행동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안을 작성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생산기업체에 소속된 과학자·기술자의 정보이용과 요구에 대하여 그들의 소속집단에 따른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김태승(1996)<sup>17</sup>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의 정보환경과 각종 정보의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자연과학 분야의 4개 연구소와 대학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여 연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원과 교수, 연구자이면서 대학원생인 정보이용자들 113명에 대해 25개 항목의 조사표를 작성하여 이중에서 일정한 유의수준을 갖는 항목 14개를 분석하여 정보이용자들의 일반정보환경과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하고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복임(1997)<sup>18</sup>은 항공우주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이용 및 요구사항, 정보이용행태를 연구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설문지를 통해 정보이용행태에 관해 조사 분석하였다.

박준식·박일종·신상현(2000)<sup>19</sup>은 사회과학자들의 학술정보원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학술정보원의 이용방법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외에서의 이용자연구는 현재의 정보이용자와 잠재적인 이용자들의 제반현상에 대한 연구로서 192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되었다. 1948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영국왕립과학정보회의(Royal Social Scientific Information Conference)에서 Bernal과 Urqahart의 연구발표가 시작된 이래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60-70년대에는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1980-90년대에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보다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용자연구에 대한 성장과 발전경향을 실증하는 문헌으로는 ARIST(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가 있다. 이는 1948년이래 1990년 까지 (총 25권) '정보요구와 이용'이라는 주제하에 11차례에 걸쳐 전문가들에 의한 관련 연구물의 논평을 하고 있다.<sup>13)</sup>

Allen(1969)<sup>14)</sup>은 정보추구형태의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가장 용이한 정보채널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결정요인이 되며, 정보원의 질, 신뢰성은 그 다음의 기준이 됨을 시사하였다.

Mick · Lindsey · Callahan(1980)<sup>15)</sup>은 다양한 업무 배경과 역할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560명의 과학자와 기술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특성과 업무환경의 특성, 업무의 특성과 관련된 정보이용 행동에 관해 연구를 하였다. 조사결과, 업무환경이 주는 제약이 정보이용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Pinelli · Kennedy · Barclay(1993)<sup>16)</sup>은 러시아와 미국의 항공우주공학자들을 연구대상으로한 보고서에서 기술정보전달의 중요성, 업무환경에서 기술정보전달의 이용과 연구결과, 기술정보전달에 관련한 학부과정을 위한 적당한 내용, 도서관과 기술정보센터의 이용,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이용을 조사 분석하였다.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한의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요구와 이용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술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자료 입수방법과 소속 정보자료실(도서관)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의학 학술정보서비스의 중심이용자 계층은 국내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경력 10-15년된 연구자들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정보서비스의 내용이 좀더 전문화되고 수준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를 접근할때 일차적인 정보원으로 관련

분야 저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직위가 전임강사, 연령이 31-40세인 경우 관련분야 저널 다음으로 인터넷 정보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편이기 때문이고, 반면 60세이상, 연구경력 20년이상인 경우 관련분야 저널 다음으로 단행본 정보원이 높은 것은 접근방법이 인터넷 정보원보다는 단행본 이용에 더 익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보입수를 하는데 걸리는 주당 평균시간은 직위가 높을수록 정보입수 소요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의 경우 기존의 익숙한 정보원인 단행본 이용을 선호하고 있다고 본다.

셋째, 한의학분야 연구자들이 연구에 이용하는 자료유형에서는 인쇄자료는 연속간행물이, 비인쇄자료는 DB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연령 41-50세, 연구경력 3-5년, 15-20년인 경우는 인쇄자료 유형중 단행본 도서가 연속간행물보다 이용빈도가 다소 높았다. 비인쇄자료중에서는 DB이외에 외부온라인, CD-ROM, 비디오/오디오 등의 자료도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임강사는 CD-ROM을 DB보다 더 많이 이용하였다. 앞으로 인터넷 등을 통한 자료수집이 늘어남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전자정보의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일반적으로 한의학분야 기초 교수들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술발표와 저술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학위논문 준비나 학술논문 발표 등과 같은 순수한 학문 업적보다는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구과제 수행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본다.

다섯째, 한의학분야 연구자들은 자신의 소장자료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학분야 자료가 단행본의 비중이 높고 이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

여섯째, 한의학분야 연구자들이 정보를 입수하는데 어려운 점으로는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부족이 대부분이고, 시간부족과 정보탐색 및 이용에 관한 지식부족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근

본적으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자체가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간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양적으로 증가하는 신속한 입수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정보탐색 및 이용에 관한 지식부족은 정보의 이용방법을 모르는 이용자가 많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보 자료실에서는 충분한 안내와 참고서비스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전문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 직위, 연령, 연구경력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필요하다” 또는 “꼭 필요하다”고 답해 전문도서관 설립이 절실히 나타내고 있다. 현재 한의학분야는 소속대학의 중앙도서관만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지 소수 학교에서 한의학 도서실이란 비공식적인 자료실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을뿐이다. 따라서 전문화된 도서관이나 자료실의 설립운영이 시급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앞으로 한의학분야 연구자들을 위한 정보이용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한의학분야 연구자들이 원하는 최적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한의학 전문도서관 환경을 구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권영규, 변성희, 서미령. 한의학문현의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대한한의학회지를 대상으로. 대한한의학회지. 1999;20(1):17.
2. 한의신문. 1999. 1. 25. 5면.
3. 김두홍. 전국수준의 <과학자의 정보이용과 정보이용행동에 관한 조사>를 위한 설문시안. 정보관리연구. 1974;7(2):31-34.
4. 한복희. 과학자 · 기술자의 정보이용과 요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5. 이중요. 자연과학분야 교수들의 정보접근방법에 관한 개관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6. 김용성. 사회과학자들의 정보원에 관한 인용문헌분석. 도서관. 1988;43(3):23-36.
7. 한복희. 이용자 연구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도서관학. 1992;23:107-119.
8. 김병주. 우리나라 사회과학자의 정보이용 경향. 상명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5;8:241-253.
9. 한복희. 과학자 · 기술자의 정보이용과 요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10. 김태승. 과학기술연구자들의 정보환경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996;13(1):5-17.
11. 이복임. 항공우주분야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2. 박준식, 박일종, 신상현. 대학교수들의 학술정보원 이용행태분석-K대학의 사회과학교수집단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000;17(3):21-43.
13. 김병주. 대학교수들의 학술정보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1999;10:32.
14. Thomas J. Allen. Information Needs and Uses. ARIST. 1969;4:3-29.
15. Colin K. Mick, Geory N. Lindsey, Daniel Callahan. Toward Usable User Studies. JASIS. 1980;31(5):347-356.
16. Thomas E. Pinelli, John M. Kennedy, Rebecca O. Barclay. A Comparison of the Technical Communication Practices of Russian and US Aerospace Engineers and Scientists. The NASA/DoD Aerospace Knowledge Diffusion Research Project. (Washington Hilton & Towers). 1993;NASA-TM-107714:57.

## 〈별첨〉 설문지 내용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한의학분야 연구자들의 학술정보이용행태

연구]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오니, 교수님께

서 연구자료를 구하시는 방법과 견해를 정확하게  
응답해주시면 한의학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학술정  
보이 용행태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또한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3월 윤구호, 서미령, 변성희 올림

문의처 019-547-5687

### ♣ 인구통계학적 특성

\* 교수님의 인적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빈칸에 기재하  
거나 '○' 표 해주십시오.

1. 전공 [ ]

세부전공 [ ]

[예:한의학, 약학, 의학 등]

[예:침구학, 본초학 등]

2. 소속기관명 [ 대학교]

3. 직위 ① 조교수 ②부교수 ③교수 ④명예교수

4. 연령 ① 30세이하 ② 31-40세 ③ 41-50세 ④ 51-60세

⑤ 61세 이상

5. 성별 ① 남 ②여

6. 재직기간(타대학재직도 포함)

[ 년 개월]

7. 연구경력

① 3년이하 ② 3-5년 ③ 5-10년 ④ 10-15년 ⑤ 15-20년

⑥ 20년이상

8. 최종학위 ① 학사 ② 석사 ③ 박사

### ♣ 학술정보입수 방법에 대한 의견

1. 교수님께서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소요되  
는 시간, 횟수를 기재해주십시오.

[주당 평균 : 시간]

[월간 평균 : 회]

2. 교수님께서는 정보를 일차적으로 어디에서 접근하십  
니까?

- ① 인터넷
- ② 관련분야 저널
- ③ 단행본 도서
- ④ 학위논문
- ⑤ 기타 정보원 [ ]

3. 교수님께서 연구에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은 어느것  
입니까?

- ① 도서 및 학술지에 나타난 참고문헌
- ②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검색
- ③ 동료 교수의 추천
- ④ 색인 및 초록지 등의 2차자료
- ⑤ 본인 소장자료
- ⑥ 도서관 소장자료
- ⑦ 외부전문가 조언
- ⑧ 기타 정보원 [ ]

4. 교수님의 연구를 위해 정기적으로 읽으시는 학술잡지  
는 몇종이나 되십니까?

- ① 전혀없다
- ② 1-2종
- ③ 3-4종
- ④ 5-6종
- ⑤ 7종 이상

5. 교수님의 연구에 이용되는 자료의 총수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종이하
- ② 11-30종
- ③ 31-50종
- ④ 51종이상

6. 교수님의 연구에 이용되는 자료의 유형은 어떤 것들  
입니까? <인쇄자료이용시> \*우선 순위별로 번호를  
매겨 주십시오.

- ① 연속간행물[ ]

② 단행본 도서 [ ]

③ 회의자료 [ ]

④ 연구보고서[ ]

⑤ 학위논문 [ ]

⑥ 신문기사 [ ]

⑦ 정부간행물[ ]

⑧ 특허자료 [ ]

⑨ 기타[ ]

7. 교수님의 연구에 이용되는 있는 자료의 유형은 어떤 것들 입니까? <비인쇄자료이용시> \*우선 순위별로 번호를 매겨 주십시오.

① 마이크로형태자료(마이크로필름, 마이 크로피쉬자료 등)[ ]

② 비디오/오디오[ ]

③ CD-ROM [ ]

④ 데이터베이스 [ ]

⑤ 외부 온라인 [ ]

⑥ 기타[ ]

8. 교수님께서 자료를 이용하는 주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연구를 위해서

② 학위논문 준비를 위해서

③ 학술발표나 저술을 위해서

④ 기타 [ ]

9. 교수님께서는 실제 어떤 경로를 이용하여 정보입수를 하십니까?

① 자신의 소장자료

② 소속기관의 자료실(도서관)

③ 국내의 다른 기관

④ 외국의 기관

10. 교수님께서 연구 및 정보수집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 도서관의 정보자료 부족

② 도서관사서의 정보서비스 부족

③ 시간부족

④ 지리적인 거리

⑤ 정보탐색 및 이용에 대한 지식부족

♠ 정보자료실(소속 도서관)에 대한 의견

1. 교수님께서는 평소 도서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주 [ ]회 정도

③ 월 [ ]회 정도

④ 기타 [ ]

2. 교수님께서 소속 정보자료실(도서관)의 자료제공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스러운 편

③ 그저 그렇다.

④ 만족하는 편이다

⑤ 매우 만족

3. 교수님께서는 소속 정보자료실(도서관)이 연구수행에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안된다.

② 도움이 안되는 편이다.

③ 보통

④ 다소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4. 교수님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중에서 소속기관 정보자료실(도서관) 자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① 10%이하

② 11-30%

③ 31-50%

④ 51-70%

⑤ 71%이상

5.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소속 정보자료실(도서관)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최신성 있는 정보자료서비스
- ② 전공관련 자료 보충
- ③ 정보탐색 등 기술적인 검색방법 안내
- ④ 외부 자료이용의 편의성 제공
- ⑤ 기타 [ ]

6. 교수님께서는 한의학 전문도서관의 필요성을 어느정  
도 느끼십니까?

- ① 전혀 필요없다.
- ② 필요하다.
- ③ 꼭 필요하다.
- ④ 모르겠다.

\* 끝까지 질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